

「2014 지역재생의 거점으로서의 학교」
한국교육시설학회 제5회 학생공모전 심시평 총평
 The Whole Process of the 5rd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장 윤 규 / 국민대 건축대학 교수
 Jang, Yoon-Gyoo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Kookmin University
 usdSPACE@hanmail.net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문명화된다. 그러나 화려한 달의 반대편에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듯이 도시가 발전할수록 버려지고 퇴화하는 도시 구조와 공간, 건축이 발생한다. 도시의 문명화와 폐허화는 일종의 순환 체계처럼 지속적으로 되풀이된다. 학교라는 장소는 도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비해서 개발되거나 반응되는 속도가 느리긴 했지만, 변화되는 도시적 요구에 의해 도심에서 밀려 나기도 하고 담장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도시에 변화와 흥망에 같이 호흡하도록 많은 요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도시 폐허화로 인해 버려지고 오염된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도시 재생 개념이며, 쇠퇴하는 기존의 도시에 새로운 건축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시 환경은 물론 산업·경제문화 등을 다시 살려 부흥시켜 나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건축으로 이뤄지는 미적 조작보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환을 유도하는 순환 체계로 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국교육시설학회의 디자인 공모전의 주제인 <지역재생의 거점으로서의 학교>는 학교의 재생이 인프라적 역할을 하는 공공성의 건축과 연계돼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로의 변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다. 지금까지 도시 재생 개념은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의 전략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이번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커뮤니티와 문화적 장치를 찾아내어 보다 구체적이며 삶과 연관된 재생의 개념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약화되었지만 학교는 과거에서부터 지역의 커뮤니티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저출

산 노령화 사회와 도시쇠퇴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제를 ‘학교’를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적 역할로 부흥시킬 때 매우 흥미로운 도시적 재생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융합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서 거창한 도시적 재생보다는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주제와 결과물을 완성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관점은 지역과 학교를 거창한 도시적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열린 학교의 개념과 학교로 되돌아가는 지역사회의 현상을 연결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을 찾아내려 하였다. 학교라는 프로그램의 영역을 확장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지역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이야기와 관과 민이 영역구분없이 만들어 나가는 지역적 재생 거버넌스 파트너 시스템의 완성으로 학교의 가능성을 탐구해 나가기로 바라보는 것이다.

한국교육시설학회의 디자인 공모전의 대상작인 <담장사이에 마주하다>의 작품은 삼청동의 입구인 덕성여고, 덕성여중을 지역과 공존하는 학교의 의를 강조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시설에서 학습이라는 프로그램만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사용되었던 담장이라는 요소를 오히려 지역사회와 도시에 열어주는 물리적 역할의 요소로 변환시킴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식되어온 건축의 물리적 요소의 역할을 다르게 변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담장과 담장사이에 존재하는 학교의 프로그램과 담장의 해체에 의해서 생성된 길과 광장, 외부공간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섞임은 어느새 지역재생의 거점공간으로서 학교, “지역이 학교다”라는 이번 공모전의 과제와 명확한

연결점을 가진다. 주민 학생 공동의 지역특별행사 및 주민과 함께하는 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축적 공간 구성을 뛰어넘어 최종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우수상작인 <지역에 숨을 불어 넣는 학교>의 작품은 마석가구공단의 쇠퇴에 의해 버려진 마석초등학교를 재생의 중심으로 보고 마을길을 따라서 커뮤니티적 기능으로 변화된 길로서의 학교를 제안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학교는 단일 중심으로 구축된 건축이 아니고 마을의 길이며 광장이며 폴리처럼 뿌려진 다기능의 프로그램적 건축으로 변환되어 있는 것이다. 건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학교가 아니고, 마을길을 숲으로 커뮤니티 길로 변화시키는 것이 곧 학교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수상인 <다시 태어나는 서원>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심곡서원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도시의 확장과 발전에 의해서 쇠퇴해 가는 전통공간이 며 과거의 학교 기능을 지역 도시의 생활 중점공간화 하고 역사와 문화 교육의 장소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진 점이 우수하다 하겠다. 특히 도시 고령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현재는 잊혀져가는 역사적 사회적 기능이었던 서원의 의미를 다시 일깨우고 지식의 전달자로서 만의 학교가 아닌 정신적 수도와 힐링과 치유 같은 다른 의미의 학교의 기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우수상인 <도심속 비밀기지>는 학교와 도시가 만나는 경사지 혹은 높은 옹벽과 같은 장소를 아이들의 커뮤니티적 유희 공간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의 버려지거나 열악한 장소를 관찰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시킴으로서 오히려 반대적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프로젝트이다. 저절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단절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프로그램 매스와 단형 랜드스케이프의 조합을 통해서 오역은 사라지고 다양한 놀이와 커뮤니티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우수상인 <문화예술의 통합을 통해 놀이터가 되는 학교>의 작품은 대구 순증황제 남순행로와 국채보상로의 역사성의 장소에 대구예술발전소, 문화창작교류센터, 공원과 연계된 학교를 제안하고 있다. 근린주거내의 잉여교실, 운동장등의 개방과 복합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적 공동체를 만들어 내려한 점이 흥미롭다.

그 외 요번 교육시설학회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작품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단순히 멋있고 형태적인 건축에 집중하지 않고 사회와 도시, 지역을 생각하고

건강한 건축을 제안하려고 모두 애쓴 점에 찬사를 보낸다. 이러한 사회적 건축은 사회를 바라보고 진단하는 도시리서치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모든 작품이 훌륭했지만 입상한 작품들은 리서치를 근간으로 하여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변화를 학교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고민과 제안하는 시스템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축적 장치로서 발전할 수 있는가와 주제의 개념성에 의해서 다분히 혁신적인 작품들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념적인 설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치유하고 재생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적인 면밀성과 새로운 공간적 탐험의 구조를 모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는가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건축적 개념을 프로세스화하여 발전시키는 과정과 작지만 흥미로운 건축적 아이디어가 사회적 건축으로의 변신을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 수학 중인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란 교육시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하도록 한다.

1. 공모전의 주제 _ 「지역재생 거점으로서의 학교」

- 지역재생 거점으로서의 학교는 아래의 네 가지 소주제를 포함한다.
 - 1) 커뮤니티와 학교
 - 2) 지역재생과 학교
 - 3) 평생학습도시와 학교
 - 4) 지역사회복지와 학교
- 지역재생의 거점으로서 학교라는 공모전의 주제를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구체화한다.
 - 1) 학교와 지역의 문제를 각기 개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고 “지역이 학교다”란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으로 열린 학교, 학교로 들어온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의 설계
 - 2) 저출산 노령화 사회와 도시쇠퇴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역’과 ‘학교’가 서로 연계하여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융합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리모델링
 - 3) 학교가 지닌 인력, 지식, 시스템, 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지역복지 시스템(건강, 체육, 보육, 생애학습, 고용 등)의 설계
 - 4) 지역-학교 연계시스템을 통해 민-관-학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재생의 파트너십의 구축